

보도 일시	2022. 3. 3.(목) 16:30	배포 일시	2022. 3. 3.(목) 16:30
담당 부서 <총괄>	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	책임자	과 장 신언성 (043-901-7010)
		담당자	사무관 황동익 (043-901-7047)

이번 주말(3.4. ~ 3.5.) 기상전망

- 4일 강한 바람, 천둥·번개, 비 온 후 5일까지 강풍 -

주요 내용

- 4일(금) 낮(12시)부터 5일(토)까지 강한 바람(순간풍속 시속 70km), 건조, 산불 유의
 -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 등 시설물 피해 및 거리 보행자 안전 사고 유의
- 4일(금) 늦은 오후(17시)~밤(22시) 사이 비, 돌풍, 천둥·번개 동반
- 3일(목)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 황사 발원
 -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 당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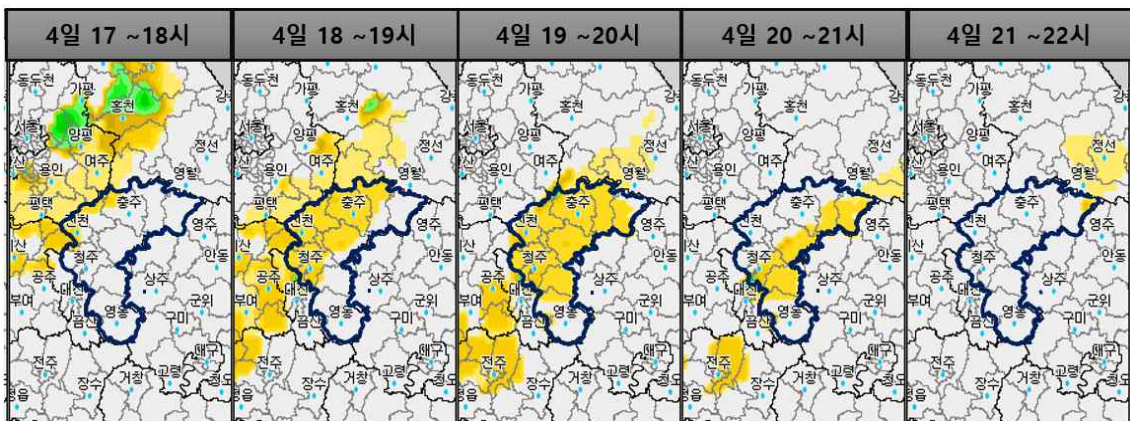
[내일(3.4.) 기압계 모식도]

[이번 주말 날씨 요약]

- 청주기상지청(지청장 김동진)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번 주말 기간인 **3월 4일(금)~5일(토)**에 대한 기상전망을 발표했다.
- 청주기상지청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**4일 늦은 오후(17시)부터 밤(22시)까지 충청북도 전역에 비가 올 것으로** 전망했다. 이번 비는 **5mm 미만으로 조금 오겠으나**,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**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**고 밝혔다. 비가 그친 후에도 **강풍이 계속되므로 안전사고에 주의**를 당부했다.

[기압계 및 강수 전망]

- 청주기상지청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이 4일 오후 충북 북서부지역을 시작으로 충북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친 후 4일 밤 동쪽 방향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, 5일부터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.
- 충청북도는 4일 맑다가 기압골이 점차 다가오면서 아침부터 차차 흐려져 **17시경부터 북서부지역(충주, 음성, 진천)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**겠고, **22시경 기압골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도 그칠 것으로** 전망했다.



[3월 4일 시간별 예상 강수 분포]

- 이번 비는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으나, 비가 내리는 시간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북동부지역(단양, 제천, 충주)에서는 천둥·번개와 돌풍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.

[예상 강수량]

- 충청북도(3월 4일 17~22시) : 5mm 미만

[강풍 및 건조 전망]

- 4일 기압골이 점차 접근하면서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5일 오전에서 밤 사이에는 북서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의 영향으로, 4일 오전(12시)부터 순간풍속 시속 70km(초속 20m)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밝히면서,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- 바람은 기압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4일 낮(12시)부터 밤(21시)까지, 그리고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받는 5일 오전(10시)부터 늦은 오후(18시)까지 특히, 강하게 불겠으며, 4일 오후에는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,
-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, 조립식 지붕 등 시설물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고, 간판 등 강풍에 날릴 수 있는 낙하물에 의한 피해에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- 더불어,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영동 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은 상태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
[황사 전망]

- 청주기상청은 오늘(3일)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 부근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황사가 발원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더불어, 황사의 영향 여부는 발원 농도와 기류의 흐름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므로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당부했다.